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 케어 방안 연구

2022. 06.



대전광역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 연구회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재대학교 마인드심리상담연구소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
케어 방안 연구

차 례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 케어 방안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11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13
3.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17
4.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20
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지원정책 ..	23
6. 현실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형태의 필요성	32
7. 2018년도 연구결과 개요	34

Ⅲ. 학교 밖 청소년 질적 분석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44
2. 분석방법	46
3. 연구결과	48
4. 결론 및 제언	71
5.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제언	78
 참고문헌	 83
 부록	 89

I .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은 학습 결손, 기초학력 및 학업성취도 하락, 대인관계에서의 결핍, 사회적 고립감 등 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저하와 돌봄 공백을 초래하였다(김현수, 2020).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교우관계나 청소년 활동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은 곧 학생이라는 인식이 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사회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직 배움 중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학생인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의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되는 일종의 신분적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2020)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에 비해 매년 약 5만 명의 학생이 학교중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수 대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2015년에 약 0.8%, 2020년에 약 1%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1% 미만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고 학교중단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와 유형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문제아’로 낙인찍혀 사회적 냉대를 받고 있으며, 아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그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공적 마스크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에 청소년증이 포함되지 않아 학생증이 아닌 청소년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인증해야 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조해영, 2020). 짧은 논란 이후 청소년증이 신분증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문화, 여가, 체험활동과 학습 및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ENB교육뉴스방송, 2022).

이렇듯 학교라는 체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이면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에 대한 학습의 기회 또한 제공한다는 것을 고려한인관계 및 지식을 학습할 기회의 단절이라면(최유선, 손은령, 2015),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중단을 선택함으로써 대라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협소해지고 단절됨에 따라 사회성 발달의 위기를 경험하며(권옥현, 허소정, 이동훈, 2021), 학생이라는 신분이 사라짐에 따라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윤철경 외, 2014). 2019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6세~만 18세,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모두 학교중단 이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입견’과 ‘편견’, ‘무시’라고 응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준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기회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낙오자라는 평가를 받도록 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부적응이나 실업, 이탈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중에는 단순히 학교를 떠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이나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학업 중단 후 이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백혜정 외, 2015).

청소년의 학교중단의 이유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선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를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소속감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거주지별로도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대도시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의 학업적 특성을 보였다. 반면, 읍면지역의 청소년은 학교중단 상태로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고, 도시지역 청소년과 비교해 진로에 있어 낮은 동기로 미결정인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도시 지역은 위기 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 행동 증가와 가족구조 기능 문제,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슬럼 지역 내 집단행동 증가, 읍면지역의 무기력 및 생활방식 불규칙 등이 보고되고 있다(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 2018). 이렇듯 거주지별 특성에 따라 나타난 차이는 거주지별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케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017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학교중단 청소년의 비율은 2016년 기준 608명으로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4위로서 학교중단율이 매우 높다. 또한 중학교 학교중단자 수도 322명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고등학생 학교중단자 수는 727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비슷하다. 이는 대전시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보다 초등과 중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중단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학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단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와 개인으로서 생활의 걸림돌을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0.6%(980명) 서울 0.8%(6418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이정아 충남일보, 2021).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2007년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청소년과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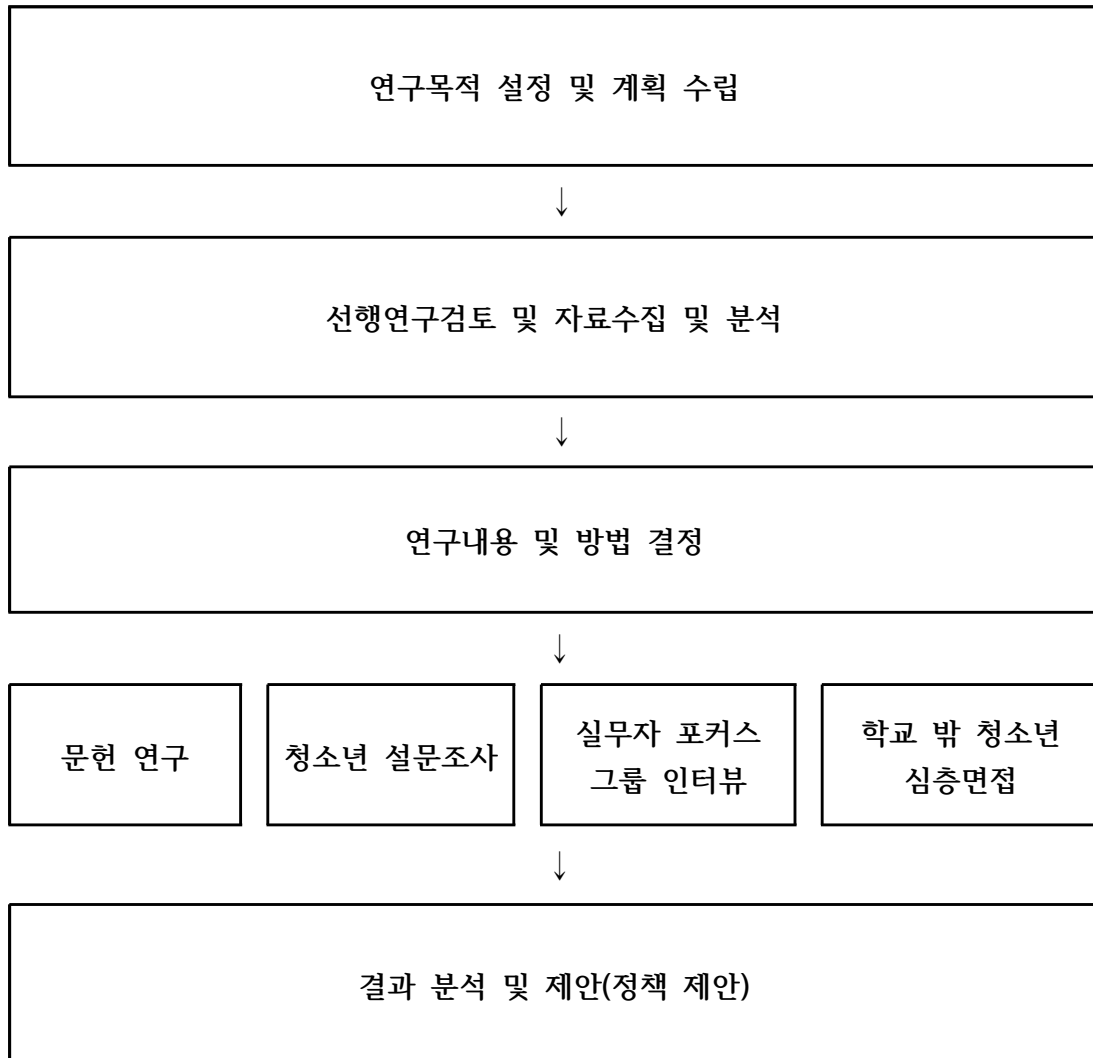
전문 상담을 받으며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해밀’과 ‘두드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진로·자립을 지원해 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보니 정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요구하는 지원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들 간의 접합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현재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의 실태와 지원정책의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내용을 질적인 분석을 통해 면밀히 살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할 것이며,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배경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면밀하게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1) 연구추진체계



2) 연구내용

(1) 기관 종사자 대상 간담회 및 심층 면접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전시·구에 설치된 청소년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원 등에 이용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내용과 센터의 활동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수집은 4월~5월 사이에 전화 또는 면접을 통한 보완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대전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대전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교중단 배경, 자원 현황(청소년 이용기관 및 인력자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

② 코로나19 팬데믹시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지역사회 지원모델

대전지역 학교 밖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여 지원모델 구축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자문

문헌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2018년 1차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영향 요인 선행연구, 사회적 지원체계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과 규모, 유형 및 특성 등을 파악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 관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국가통계자료, 기타 의회 문서 및 신문 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2) 심층 면담

구분	내용
면담참여자 섭외	대전지역 학교중단 후 경험 과정의 유형화 후 대상선정
면접참여자 수	총 30명
면담참여자 특성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습형, 취업형, 무기력형, 비행형 유형별로 구성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개별면접

3) 연구집단

- (1) 초중고 학업중단 실태: 학업중단숙려제 학생 인터뷰(K 전문계 고등학교),
초중고 학업 중단 실태 조사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유성구를 중심으로
- (3) 검정고시학원
- (4) 보호처분 1호 보호시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3.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4.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지원정책
6. 현실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형태의 필요성
7. 2018 년 연구결과 개요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초·중등교육법)”을 말한다. 이와 관련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관련 용어가 법률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은 2021년 한 해 동안 32,027명의 초·중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사유는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구분되었다(2021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21).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숙려대상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중이나 학교생활에서 자발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실질적으로 학교 내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제도적 학교 중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손병덕, 김민선, 2017).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으로 정해졌으며,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용어를 공식화하였다. 그전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부정적 관점에서 이해하던 1980년대 말에는 중도탈락, 중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때 탈락, 퇴학 등은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 의미를 내포하였다(배미경, 2016).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1990년대 말부터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업 중단이라는 용어가 중도탈락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오다가 2002년 교육법전과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였다(정효정, 2016). 학업 중단이라는 단어는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그만두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에는 학업을 잠시 중단한 것인지, 학업을 이제 더이상 하지 않는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를 중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며(전주희, 2018), 이 용어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용어 자체에서 편중된 시각을 가지는 한계가 있었다(배미경, 2016).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을 결정하기 전 숙려기간을 통해 복교를 지원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참여 청소년은 숙려기간 동안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중단 철회 기회를 얻는다. 이는 학업 중단 이전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학업 중단 이전과 학업 중단 이후의 시점에 있는 청소년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법에 정의된 대상자와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자를 포함하고자 한다(강정화, 2022).

또한, 학교를 떠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대안 학교로 가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곧 중도탈락이나 학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이후 2015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다양하게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 홈스쿨링, 청소년쉼터, 독학, 대안학교, 직업훈련 등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게 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자신의 새

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으로, 그들을 좀 더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상의 종합적인 맥락을 포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양한 이유로 현재 정규 교육과정의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오승희, 2019).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미결정된 상태 또는 현재 계획이 없는 ‘미결정 중심형’, 학력 취득과 취업 및 직업훈련 준비 등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미래 준비형’, 학업 지속에 대한 욕구로 복학을 준비하는 경우 ‘진학 준비형’으로 구분하였다(김범구, 조아미(2013). 또한 학업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업형’, 근로 및 취업 목적의 훈련을 받거나 경제활동 중인 ‘근로형’, 아직 진로가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일상을 보내는 ‘유예형’, 비행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백혜정, 송미경, 신정민(2015). 윤철경 외(2017)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한 가지 유형에 머무르지 않고 무업·학업·직업형으로 성인기 전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고, 학업중단 이후 무업형 청소년이 직업형과 학업형으로의 전환, 직업형 청소년 중에는 무업형의 전환으로 이행경로의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이러한 이행경로 변화는 주로 무업형 청소년이 직업형과 학업형으로 전환이 많고 직업형과 무업형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행경로별 유형에서 학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진로 탐색이 활발하며, 직업형은 사회적응력이 높지만, 우울과 사회적 낙인감이 높고 수면시간과 식습관이 불규칙한 편이고, 무업형은 진로 정보 부족과 미래의 계획 결정 정도가 낮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심리 정서가 강한 특성을 나타내며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윤철경 외, 2018).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별로 구분한 특성을 보면, 대도시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의 학업적 특성을 보인 반면, 읍면지역은 학업중단 상태로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별 도시지역 학교 밖 청소년과 차이는 진

로에 대한 미결정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도시 지역은 위기 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 행동 증가와 가족구조 기능 문제,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슬럼 지역 내 집단행동 증가, 읍면지역의 무기력 및 생활방식 불규칙 등이 보고되고 있다(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 2018). 이에 대하여 강정화(2022)는 거주지별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과 케어 방안을 연구하여 검정고시제도를 활용 한 학업진로 탐색, 기존의 바리스타와 제빵제과 중심의 직업진로케어에 ICT 기반 전기기능사 및 CAD 전문가, 뷰티전문가과정을 제안하기로 한다. 또한 비행형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보호처분 1호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대전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케어방안을 제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진로 결정, 삶의 형태 등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된다. 학교 밖 청소년 연구 초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하였다(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정착형은 진학형, 직장취업형, 취업준비형으로 비정착형은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방임된 청소년으로 나누었다. 정착형 청소년은 가족이나 학교에서 내면화한 가치관을 회복하여 인생 설계를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았으며, 이런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도 학업 중단 이후에 길든 짧든 일정 기간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다양한 삶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정착형 청소년 중 진학형은 일정 기간 방황을 하다가 학교에 복교하거나 검정고시 학원, 학력 인정 사회교육 시설,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 의욕과 학업 기술상의 문제, 경제적 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취업형은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거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유형으로 나름대로 진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또래를 만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정서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준비형은 사설 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유형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장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들은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여 약물이나 사소한 비행 행위에 참여하기도 한다. 비정착형 청소년은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유형이며,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방임 청소년이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중에서 일부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각종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보호받고 관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을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비정착형 청소년 중에는 책임 있는 공식기관에 의해서 전혀 보호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들은 크게 방치된 비행 학업 중단 청소년과 방치된 정신질환 학업 중단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이후 대안적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대안적 삶의 바탕 위에서 향후 진로를 지향하게 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여섯 가지 진로설정유형으로 나누었다. 대안적 삶의 형태에 따라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이후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대안적 삶의 유형으로 크게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등 기관에 소속 혹은 수용된 상태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준비하는 유형과 기관에 소속 혹은 수용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진로 지향에 따라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유형을 진학지향형, 취업지향형, 진학도 취업도 아닌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만을 하면서 지내는 방임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대안적 삶의 형태와 향후 진로지향의 하위유형을 교차시켜 여섯 가지의 학업 중단 청소년의 진로 설정유형으로 나누었다.

김경애(2014)는 학습하고 있거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취업했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준비형과 성장형으로 나누었으며, 학습이나 취업과 관련되어 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준비형, 스스로 생애 진로설계와 단계별 노력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춘 상태를 성장형으로 분류하였다. 중지형은 본격적으로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치료형은 심각한 비행이나 질병과 관련되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유형화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표2-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2-1>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이숙영 외 (1997)	박창남 외 (2001)	이경상 외 (2005)	윤철경 외 (2010)	김경애 외 (2014)
진학형	진학형	순수 진학형	학습 지향형	성장형
건전 직장 취업형	취업형	아르바이트형	취업·알바형	중지형
취업 준비형	직업훈련형	취업형	무업형	치료형
소년원, 보호관찰 보호·관리	시설수용형	진로미결정	비행형	
비행, 가출, 미취업	가출	기타		
치료, 요양 중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에서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교육정책포럼 308호, 2019), 교육부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안(교육부, 2015)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표2-2>와 같이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하였다.

<표2-2>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비율

구분	내용	비율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42.0%
무업형	특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23.0%
직업형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17.9%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받는 경우	8.9%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미조사

검정고시를 공부하거나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을 준비하는 학업형은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중 42%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며, 특정 목표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인 무업형은 23.0%, 직업형은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나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하는 경우인 직업형은 17.9%에 해당한다. 그 외 가출하거나 보호시설, 사법기관 감독을 받은 경우인 비행형은 8.9%이며, 은둔형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이다(교육부, 2015).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의 상황이나 진로 결정, 삶의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한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지원의 필요 정도에 따라 낮은 요구수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도 분류하기도 한다(조강원, 2017). 또한 학업을 주로 하는 학업형은 다른 직업형이나 무업형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부모의 지지가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윤철경 외, 2016). 특히 학업형은 학교중단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오은경, 2014; 윤철경 외 2016; 김미옥, 2020). 학업 유지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학교 중단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은경, 2014). 이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학교중단 이유는 학교를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거나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윤철경 외, 2016).

3.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교육부(2021)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은 281,617명으로 한 해 평균 4만 6천명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교육통계서비스(2021)의 학업 중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4%(11,612명), 중학교 0.5%(5,976명), 고등학교 1.1%(14,439명)로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학교의 학업 중단율을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표2-3>.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매해 학업중단율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초·중등 과정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표2-3> 전국 학교급별, 연도별 학업 중단율 (단위: 명, %)

구분	연도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초등학교	2016	2,714,610	14,555	0.5
	2017	2,672,843	14,998	0.6
	2018	2,674,227	16,422	0.6
	2019	2,711,385	17,797	0.7
	2020	2,747,219	18,366	0.7
	2021	2,693,716	11,612	0.4
중학교	2016	1,585,951	9,961	0.6
	2017	1,457,490	8,924	0.6
	2018	1,381,334	9,129	0.7
	2019	1,334,288	9,764	0.7
	2020	1,294,559	10,001	0.8
	2021	1,315,846	5,976	0.5
고등학교	2016	1,788,266	22,554	1.3
	2017	1,752,457	23,741	1.4
	2018	1,669,699	24,506	1.5
	2019	1,538,576	24,978	1.6
	2020	1,411,027	23,894	1.7
	2021	1,337,312	14,439	1.1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21).

대전시의 경우 교육통계(교육부, 2021)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9,038명으로 한 해 평균 1천 5백명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학업 중단율은 <표2-4>와 같이 전국과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대전시 역시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할지라도 학업 중단자의 비율이 타도시에 비해 높다. 초등학교는 종교계열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에 재학하는 수가 포함 되어서 학업중단자의 수가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표2-4> 대전시 학업 중단율 (단위: 명, %)

구분	연도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대전	전국
초등학교	2016	89,464	529	0.6	0.5
	2017	85,939	608	0.7	0.6
	2018	84,240	555	0.7	0.6
	2019	83,453	553	0.7	0.7
	2020	82,743	575	0.7	0.7
	2021	79,807	274	0.3	0.4
중학교	2016	52,215	305	0.6	0.6
	2017	47,646	322	0.7	0.6
	2018	44,961	288	0.6	0.7
	2019	42,675	304	0.7	0.7
	2020	40,732	275	0.7	0.8
	2021	40,694	200	0.5	0.5
고등학교	2016	58,598	746	1.3	1.3
	2017	57,087	727	1.3	1.4
	2018	53,770	749	1.4	1.5
	2019	49,332	775	1.6	1.6
	2020	44,895	747	1.7	1.7
	2021	42,488	506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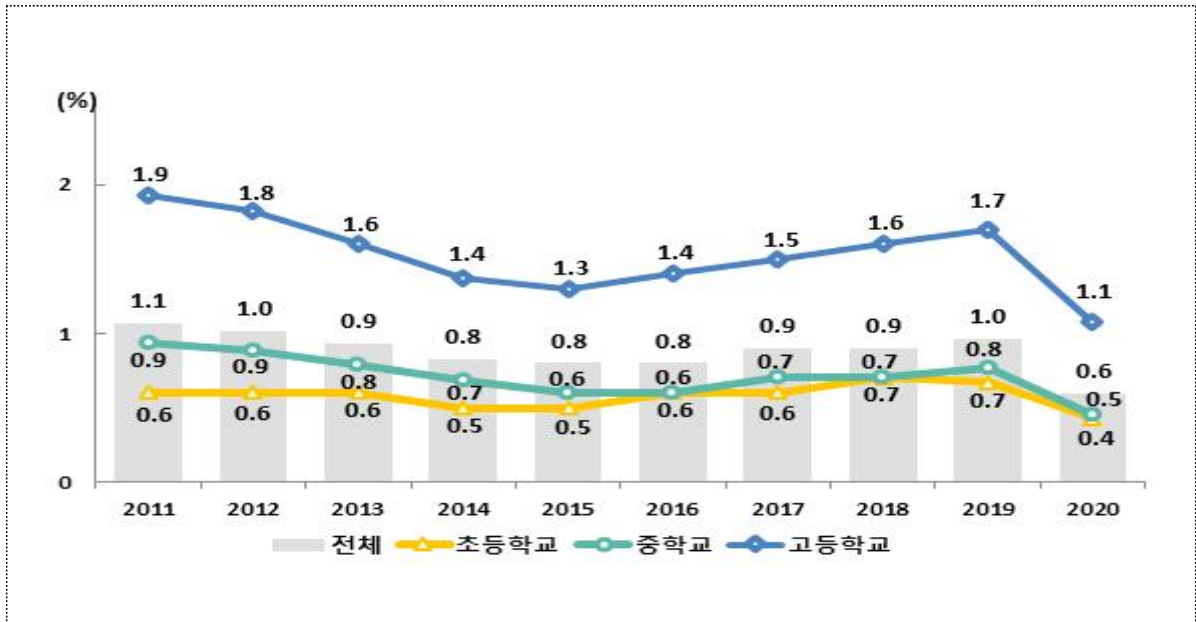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21).

여성가족부(2018)에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0.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때가 26.9%, 초등학교 때 12.4%의 순이었다. 그 중 고등학교 1학년(37.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21.3%), 초등학교 졸업 후 진학하지 않은 경우, 중학교 1학년과 2학년(각 6.9%),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하지 않은 경우(6.6%)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39.4%)가 가장 많았고, “공부하기 싫어

서”(23.8%),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3.4%), “학교 분위기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19.3%), “심리·정신적인 문제로”(17.8%),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15.5%), “내 특기를 살리려고”(15.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9.5%), “심리·정신적인 문제로”(23.1%), “학교 분위기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22.6%) 순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남미애, 2006; 배미경, 2013)들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로 과거에는 개인적·가정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업 중단을 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학교 부적응문제,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기타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업 중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지만,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정, 또래, 학교 등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배경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현적인 비행 문제뿐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주위 사람들의 편견,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 등을 겪고 있었다(남미애, 2006; 배미경, 2013).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편견이나 무시 등 선입견(39.6%)이 가장 많았으며,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28.0%), 무기력함(24.0%), 부모와의 갈등(23.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배미경, 2016).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2007)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 선도 보호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생활영역별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어려움을 정리하였는데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 교사와 친구로부터의 관계 단절, 부모와 가족, 친척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자신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생들이 받는 다양한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미래에 대



[그림2-1] 초·중·고교 학업 중단율

출처:2021 교육기본통계

한 망막함과 불안함, 사회 지지의 부족 등이다.

4.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에게 있어 초·중·고등학교 시기는 단순히 학업을 계속한다는 의미와 함께 자아정체감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사회성이나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 상호작용 등과 같은 사회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중단하게 되면 청소년은 ‘의미 있는 자아’를 형성할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불필요한 무망감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손승연, 2003).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사회적 기술의 결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위축감으로 나타났다(윤철경, 류방란, 2010).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회피적 반응으로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통제불능감을 보이며, 우울이나 자살 충동 등 정서적 어려움이 보고되었다(오혜영, 2012).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면서 개인으로는 더 나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인적자본의 핵심 요인이다(이경상, 조혜영, 2005).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습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주변적인 고용시장에 속하게 되거나 철저하게 사회에 의존하게 되는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듯 학교중단은 교육적, 직업적 발달의 기회가 상실되고, 신체·정서·경제적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순환 고리를 증가시킨다(Bloom, 2010).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들의 문제와 부적응 이유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미리 한계를 지우고,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목적도 가지지 못하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이들을 부적응 행동을 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만든다. 학교중단 이후에도 불규칙한 생활에 대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McWhiter et al, 2007).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반적 특징에서 보면, 가족의 구조 형태가 일반 가족 형태보다는 이혼, 재혼, 사별의 가족 형태가 더 많았으며, 또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백순희, 2017). 즉,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기능이 축소된다면 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통제력과 결집력이 약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규범과 가족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행복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감소하였고, 청소년들이 위기상황과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볼 때(조경덕, 2020), 학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력할 수 있는 지원들은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지원정책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책이 법령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다음으로 청소년 대상의 법률 규범 중에서 중심적이고 지도적인 규범을 갖는 법은 「청소년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활동, 보호, 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 등의 법률들이 있다. 이에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구체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법규범이 마련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2013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로 2014년 「학교 밖 청소년법」이 제정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시행, 학교 밖 청소년지원 위원회의 설치, 상담·교육·직업 및 체험·자립지원, 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을 위해 「헌법」 제31조 제1항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과 권리실현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닌 같은 청소년으로서 권리의 대상자로 보아야 할 이유이다(김선녀, 2019).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회 박탈과 제도적인 권리에서 배제되는 삶이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배움을 지속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

원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행하도록 강화하였다(법제처, 2021). 이에 따라 대상자 발굴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시의적절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강화로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자 초·중등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2021.3.23. 신설). 그동안 개인정보 미동의 청소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자동 연계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립지원, 지원센터의 설치기준·취소, 관계기관 협조 사항, 권한 위임, 고유 식별정보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법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내용과 방법,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연계를 위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제정 시기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법」 제정 이전인 광주광역시(2011.07.27 제정)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주광역시에는 매년 많은 수의 학업 중단 청소년이 증가하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지역 의원들의 노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이용교,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자치법규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을 거쳐 제정하게 된다(강정화, 2022).

조례제정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이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과 자립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대상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구성조항은 <표2-5>에서 보았듯이 대체로 목적, 정의, 지자체장의 책무, 지원계획수립, 지원사업, 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대안교육 기관지원,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의 조항으로 건강권, 실태조사, 공공시설 이용, 후견인제도 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표2-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구성조항

자치 단체	조항 구성내용							
	총칙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대안 교육 지원	지역 사회 협력 체계
		수립 시행	실태 조사	지원 사업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지방자치단체는 전달체계, 예산확보 방안 등과 같은 추진체계를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청소년정책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업별로 지정된 보조 비율을 적용한 정률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수,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요인,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은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정윤미, 2014). 또한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자체 예산마련에 따라 청소년정책 사업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와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에서 자체 사업 비율이 매우 높다(문성호, 정지윤, 2016).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충족하고 있는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욕구 충족 정도는 지방정부의 각종 행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조례의 제·개정에 의해 달라진다(김선녀, 2019). 즉, 지방의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은 지역사회의 지역주민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김정희, 김광병(2020)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법」의 주요 지원사업 현황을 비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상이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 사회적 낙인은 사회진입 시장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청소년 관련 조례가 법령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있는지 지자체 간의 규정 내용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지원조례가 법령의 내용보다 조례로서 명시되거나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었다(조성제, 김윤나, 2018).

선행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법」보다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함에도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법」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과 문제, 욕구를 반영한 조례 내용을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법」과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김광병, 김수정, 2020).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역단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이주연, 최지훈, 2019; 장근영, 서고운, 윤철경, 이동훈, 2019; 홍선영, 박금식, 박지영, 201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문성호, 노지혜, 2020).

3)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교육인적자원부 학업 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2002)를 시작으로, 청소년 관련 부처와 학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7년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시범 운영한 청소년 자립 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표2-6>에서와 같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표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부처	지원사업명	내용
여성 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9-24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지원, 교육지원(학업중단숙려상담, 대학입시, 복교지원 등),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직업탐색,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지원(자기계발 프로그램), 건강검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등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만9-18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대상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등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CYS-Net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청소년 쉼터	주거 및 생활지원
교육부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학교 부적응 예방, 학교적응력 향상 지원: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대안교육 기회 확충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 편성 운영
	위탁교육 활성화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밖 기관 활용

	학업중단숙려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만 18세~64세(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24세),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최대 1년) 1단계: 집중상담, 경로 설정 2단계: 직업능력 향상 3단계: 집중 취업알선 등 참여수당(최대25만원) 및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 지원
법무부	청소년자립생활관	만12~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 기관 추천(의뢰) 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 및 심리상담, 학업 연계 지원, 활동지원, 현장체험지원, 재능기부자 연계 지원 등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초기단계에 있거나 일탈행동을 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학교징계자, 기소유예자, 보호처분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 유형별 전문교육, 소년원 입소 청소년에게 학업연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경찰청	배움터 지킴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력배치(퇴직교사, 경찰, 직업군인 또는 상담전문가 등)
보건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상담, 사례관리, 고위험군관리, 교육 등

(1) 여성가족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 시행, 2017.10.27.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설하고, 기존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어왔던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 등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16개 시·도 사업 운영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로 지정·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국 총 220개소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교육부

Wee프로젝트는 시·도교육청에 Wee스쿨, 교육청에 Wee센터, 단위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여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주 대상은 위기 학생이다. 학교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상담을 진행한다. 하지만 교내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의 경우는 학업중단숙려상담을 Wee센터 또는 Wee스쿨에 의뢰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의뢰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하는 위탁교육이 있다. 이외에 기존에 재학 중인 정규학교 중단 후 편입이 가능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가 있다.

(3)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단 및 경로 설정 → 의욕 및 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로 I 유형의 사업 대상이 된다. I 유형은 1단계(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취업의욕과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제), 3단계(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취업알선)인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4) 법무부

법무부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를 운영해 비행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일탈행동을 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제공하고, 대상 청소년에게 학업 연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만 12세부터 22세 이하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무의탁 소년원 출생원이나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료숙식, 심리상담, 학업 연계 등의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김송이, 2017).

(5) 기타

여성가족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스포츠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우 정신 병리적인 문제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해당 대상자의 정신 병리적인 특성에 맞추어 개입이 가능한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교육, 직업훈련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4)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교육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데 2022년 현재 전국에 총 220개, 대전시는 3개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설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의 청소년지원인 청소년 특별지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보호처분 1호 위탁기관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성 부족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등 여러 문제가 도출되어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백혜정 외, 2015).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 밖 지원사업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학교 밖 지원체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중단 이후 무기력해진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 주며, 소속감과 대인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나아가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명소연, 조진옥, 2016).

6. 현실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형태의 필요성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 변화에 맞춘 청소년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 계획을 제시하였다.

<표2-7>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구분	주요 내용	부처
학교 밖 청소년 맞춤 지원 강화	○ 청소년의 근로 동의 발급 주체 범위 확대 - 부모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가출 청소년 등을 위해 해당 청소년이 입소해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동의 주체에 포함 *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	고용 노동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운영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 간 연계성을 통해 전문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대상특화형 직업교육 제공 * 단기과정 개설, 소통창구 마련 등 청소년 친화적 운영 추진 - 기업 맞춤 훈련 과정 운영 및 해당 기업 취업 연계 지원 - 자립장려금, 교통비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으로 취업 동기 제고	여성 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 목공예, 영상 촬영, 바리스타 등 관련 기술 습득 및 직업 체험이 가능한 청소년 작업장 운영 지원	여성 가족부, 지자체
	○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 동기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 * 학업형, 직업형, 집중적 진로교육이 필요한 비행형, 무업형, 은둔형 - 민관 협력을 통한 진로 체험활동 강화 * 스포츠 역량 강화지원, 문화예술 교육지원, 창업·경제 교육 지원	여성 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중소벤처 기업부
	○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 유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자 시설에서의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미혼모자 시설의 대안 위탁교육 기관 지정·운영 등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호 	여성 가족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적응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실화 	여성 가족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협력 확대 -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 강화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 가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 	여성 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 복지부,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학업, 취업,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존감 회복 및 관계 형성 증진을 위한 적응지원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의 학습 및 학력 인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 취업에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 가족부, 교육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CYS-Net)를 활용, 위기청소년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여성 가족부
가출 청소년 가정 복귀 등 조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거리, 사이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전화 1388, 문자·사이버 상담, 성매매 피해상담 등 24시간 연계 가동 및 ‘찾아가는 거리 상담’ 등 다양한 채널 운영을 통한 조기 개입 -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거리 상담’ 집중 실시로 거리 청소년계도 강화 및 가출팜 청소년 적극 발견 - 랜덤 채팅앱과 검색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채팅상담, 쉼터 연계 등 온라인상의 위기 개입 및 긴급구호 강화 * 가출 청소년이 일자리, 숙박 등 정보를 얻는 랜덤 채팅앱 	여성 가족부, 경찰청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실현 이전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한 케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7. 2018년도 연구 결과 개요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조경덕, 2018)

2018년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요인별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서술한 내용은 건강상의 요인,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시간 부족,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흥미 부족, 학교 측의 자퇴 권유, 조기취업, 해외이민·유학, 대안학교 진학, 소년원 입소 등을 이유로 서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학교를 그만둔 이유의 순위를 분석한 결과 <표2-8>과 같이 학업형은 1순위가 학교생활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2순위가 성적, 학업이 부담스러워서로 나타났으며, 직업형은 1순위가 돈을 벌고 싶어서, 2순위가 자유롭고 싶어서로 나타났다. 무기력형은 1순위가 자유롭고 싶어서, 2순위가 그냥 충동적으로 나타났으며, 비행형은 1순위가 자유롭고 싶어서, 2순위가 돈을 벌고 싶어서로 나타났다.

<표2-8> 학교를 그만둔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학업형	학교생활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성적, 학업이 부담스러워서
직업형	돈을 벌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무기력형	자유롭고 싶어서	그냥 충동적으로
비행형	자유롭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다음과 같다. 놀기와 그냥 시간 보내기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정고시 준비 23.1%, 아르바이트 14.1%, PC방 6.8%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

한 이후 다수의 학생들은 검정고시 준비 등의 장기적인 목표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목표 외에 단순히 놀거나 시간 보내기 등의 목표 없는 행위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조사한 결과 어두운 장래에 대한 걱정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20.7%와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 20.0%, 할 일이 없어 따분함 7.2%, 일자리 찾는 것의 어려움 5.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자신의 미래나 현재 경제적인 여건 등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인 시선이나 현재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감과 불안감, 두려움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28.6%로 가장 높았고, 어두운 장래에 대한 걱정 19.0%, 일자리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 13.6%, 주변의 편견 등의 따가운 시선 7.2%, 건강 문제 5.1% 등이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해주길 희망하는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이 11.1%로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개선 10.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이해 증가 10.1%,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제공 9.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시설 확대 9.4%, 진로탐색 및 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8.7%,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전까지 생활비 보조 7.8%,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2%, 학력 인정의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5.3%,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전문적 치료 제공 4.2%, 학교폭력 절차의 개선과 지원 4%, 숙식 제공 3.9%의 순이었다.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종단 이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8). 이는 지역별 규모와 지원 인프라 환경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학교 밖 청소년 심층 면담 내용

심층 면접을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수가 비행 행위를 통해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심층 면접 대상자들의 특성은 실제 비행 행위 등으로 인해 비행형 청소년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들이 원하는 모습들은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다수의 심층 면접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개인적인 요인이나 학업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 중단을 고민하고 있을 시점에 선생님과 갈등이 두드러졌고, 이에 반발하여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 면접을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 그 이유는 첫째, 아이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에 비롯된 경우가 많았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배려 없이 아이를 문제아로서 낙인찍고 주관적 감정을 개입하여 아이를 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둘째, 학교 측의 정보 제공의 미흡함이다. 아이가 학업에 부담감을 느껴 학업 중단을 요청하였을 때, 학교 측에서는 제도와 학칙, 교칙 등에 의거하여 청소년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온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 상담교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아도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학업 중단 과정에서 아무런 학교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답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학교 측의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담당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문제아나 비행 청소년으로 보는 인식이 많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다수의 상담대상자들은 공교육이 아닌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느끼며, 현재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3) 요약 및 시사점

학업을 중단하고 6개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을 결심한 후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실제로 외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관이나 지원정책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 다양한 학교 밖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형의 모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목표를 소실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 등으로 비행 행위를 저질러 성인 범죄자로 발전시킬 것인지는 학업을 중단한 후 초반 6개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일명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중단 후 초기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골든타임에 청소년 지원기관과 행정 기관 교육청, 가족의 협업에 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로서 청소년 포커스 그룹과 전문가 포커스 그룹의 회의로 도출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는 순간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소속감을 상실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는 청년과 비슷하지만, 유사 아동·청소년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은 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정책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용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도, 청년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다음 단계 진입의 어려움이다.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장 가까운 학교에 학업 중단을 상담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은 문제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대안학교나 자퇴를 권유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대안학교 부족이나 학교 측에서의 정보 제공의 미흡 등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영향과 답답함, 무기력감 등을 가지게 되고,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어려워짐으로써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이었지만 비행형, 무기력형 청소년으로 변화하는 악영향이 일어난다.

셋째, 대전시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의 부족 문제이다.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3개소의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구 대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대전시에서 전체의 학생을 3개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만

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업 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의 홍보 또한 부족해지면 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하는 청소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청소년지원 센터에서는 이용대상인 청소년들만 인식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의 발굴이 어 렵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 현재 대전시 소재 대안학교의 부족이다. 대전에는 여러 형태의 대안 학교가 존재하지만, 교육청 인가를 받은 사립형 대안학교는 그라시아스 음악학 교(중고과정)가 유일하며, 대전은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이다. 실제 많은 학부모들은 학력 인정의 대안학교를 원하기도 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들 또한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학력 상승을 기본적인 미래계획의 첫 번째로 삼 고 있다. 대안학교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미래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예산, 여건 부족 등으로 인해 진입을 어 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대전시의 노동인구를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업형, 직업형, 무기력형, 비행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제안 하였다.

첫째, 학업형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허브형 대안학교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업형에 속하는 자신의 학력 상승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대안학교, 학원 등과 같은 교육시설을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으로서 현재 부족한 대전의 대안학교 시설을 새로운 허브형 대안학교 활성화로 인해 충족 시킨다면 학업형 청소년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으로 생긴 감소된 학업 의지 를 증가시키고,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시킴으로써 학 교 밖 청소년이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것을 막는다. 새로운 허브형 대안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데, ① 학업 중단 시 가장 중요한 ‘골든타 임(Golden Time)에 현장에 개입하여 대안학교에서 수행할 직업훈련 과정과 학업 과정에 대한 연계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②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것을 방지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학교 밖으로 나와 소속감이 감소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동체적인 삶과 진로 찾기를 수행하며 소속감을 증가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③ 공교육에서의 필수 커리큘럼이나 필독서, 인성교육, 진로상담 등을 통해 학력 인정, 공립형 대안학교 시스템을 확립한다. ④ 대안학교에서는 직업탐색 - 상담 - 직업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연계과정을 제공하여 대전시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⑤ 대안학교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두어, 시청과 교육청, CYS-Net,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등 여러 기관, 시설들과 연계 및 협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무기력형, 비행형 청소년들이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학업형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나 자격증 준비 등 자신의 학력 상승을 중요시하므로 대안학교 소속만으로 학력 인정이 가능한 허브형 대안학교가 존재한다면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학부모의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지원 및 기업 맞춤형 훈련을 제안한다. 실제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근로 및 빠른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학교를 떠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현재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진행 중인 청소년으로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진로를 진행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동을 진행하는 청소년들보다 의지가 높거나 심리상태 안정이 빠른 편이다. 그러나 대전시에는 이러한 직업프로그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대전시의 노동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 의지가 감소하기 전에 취·창업에 대한 집중적인 진로교육을 진행한다면 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확고한 취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 이후 근로권 침해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시선 등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퇴사 후 취업 의지를 상실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은 단지 직업형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사회에서 소외계층

으로 취급받았던 학교 밖 청소년을 잠재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고 대전시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줄 지원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무기력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복지 지원과 더불어 꿈드림 청소년상담센터 인력 확충, 건강 및 의료지원 등을 제안한다. 대전시 청소년들의 복지를 총괄적 허브(Hub)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통합지원체계(CYS-Net)와 1388 청소년 전화이다.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CYS-Net)이 출발한 취지는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모든 청소년업무의 기능을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다.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청소년을 얼마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통합지원체계(CYS-Net)의 성공적인 운영은 네트워크(Network)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가 3개소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그마저도 동구와 서구, 유성구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어 다른 구에 주거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거리, 혹은 홍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관할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력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합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없애려면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모자란 구에 1개소씩 설치하는 동시에 대전시 소재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비행형 청소년을 위해 법원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재비행 방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비행형 청소년은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부모와의 불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반감 등 외부적 요인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아 심리적 상태가 매우 열악하며, 한번 비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을 때 재범에 대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탐색 및 계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비행 청소년들의 보호, 치료,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위탁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으로 비행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시의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실제 여러 폭력, 협박, 절도, 욕설 등 사이버 범죄행위, 성희롱과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과 음주 등 청소년에게 금지된 일탈행동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범죄는 강력 범죄가 매우 많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계도시켜 성인 범죄자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가정법원이나 경찰청 등에서 교화 및 교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교화·교정 프로그램들은 아직 미성숙한 비행형 청소년들에게 격리 대신 교화와 계도를 통해 범죄율을 낮춘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지자체에서 행하는 것보다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더욱더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만약 대전시와 법원,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하나의 네트워크 체제로서 이러한 비행형 청소년들을 계도할 수 있다면 미래에 성인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협을 미리 줄이는 동시에 비행형 청소년들을 다시 사회 울타리 안으로 복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시스템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원체계에서 발굴되지 않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각 지자체와 여러 단체들이 협약을 통한 데이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낮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고-발굴-진단-연계-서비스 실행-평가-추후 관리 등 맞춤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분리된 부서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급의 전담부서를 설치함과 동시에 대전시만이 단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법원, 경찰청, 직업전문학교 등이 협업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III. 학교 밖 청소년 연구 및 정책 제언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2. 분석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제언
5. 정책제언

학교 밖 청소년 연구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지역의 중,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 기간에 있는 학생과 대전 소재 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과 검정고시 입시학원 재학 및 보호처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시설에 위탁된 학교 밖 청소년 중 만 9세부터 24세 미만인 3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표집은 교사와 학원강사, 지역 실무자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등을 담은 연구 참여 사전 동의 요청 문건을 전달하여 허락을 받았다. 선정된 성별 분포는 남자 16명, 여자 14명으로 2022년 4월 기준 연령은 18세부터 20세이고 중단 당시 연령은 14세부터 18세이다.

이들의 면접을 통한 학교중단 경로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한 결과 학교중단 이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시 학업에 복귀한 학업형, 학교중단 이후 다양한 유형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취업형, 무기력형, 비행형 의 4가지 유형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가지 유형별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각각 동일한 인원을 선정해 근거이론 기반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예비조사로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을 면담한 후 얻은 자료를 통하여 연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기본 질문과 반 구조화된 면담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새로운 정보와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 내용은 <표3-1>과 같다.

<표3-1>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에 따른 심층 면담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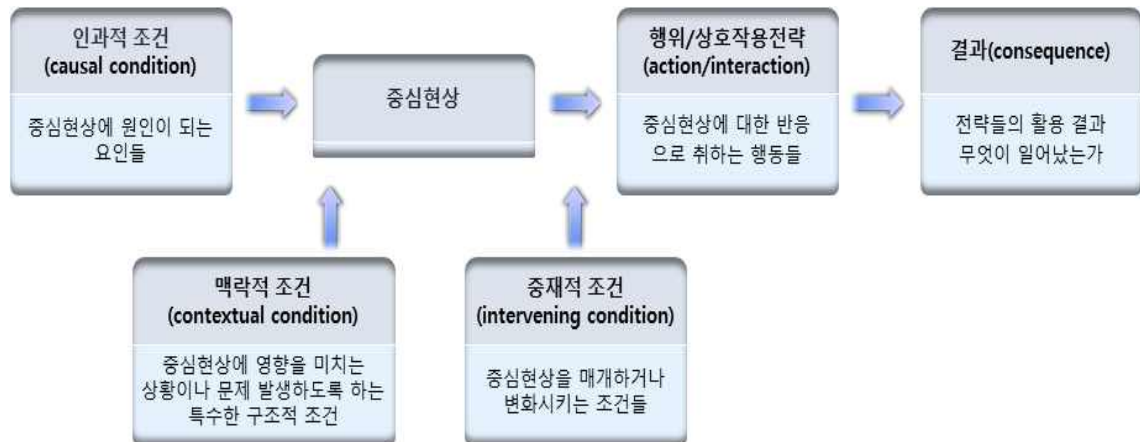
근거이론 패러다임	범주	질문	질문의 세부 내용
인과적 조건 (causal condition)	학교중단 과정 및 이유	학교중단 과정, 이유,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단을 생각한 시점 • 학교중단을 하게 된 계기 • 학교중단 할 때의 과정
맥락적 조건 (contextual condition)	학교중단 당시 심리사회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긍정/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단 당시 도움을 받았던 사람(가족, 학교, 친구 등)
	학교중단 후 사회진입 정도	계획 및 개인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단 이후 계획 • 목표가 없는 상황에 대한 생각과 감정
중심현상 (phenomenon)	학교중단 이후 어려움	학교중단이후 힘든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단 이후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나 생각
중재적 조건 (intervening condition)	심리사회적 대처요인	학교중단 이후 대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었을 때 대처방법(기관, 사람 등) • 학교중단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
행위/상호작용 전략 (action/ interaction)	사회진출 준비행동 요인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서비스 도움 여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결과 (consequences)	만족감	계획 및 개인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하는 일(학업, 직업) • 현재 생활의 만족 여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근거이론 질적 연구 접근 방법을 선택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생생한 삶 속에서 사회진입 준비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근거이론 접근 방법에 의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게 되며,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진입을 위한 중요한 지원방안을 찾게 될 것을 기대한다.

근거이론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을 위해 준비해가는 과정 및 의미를 탐색, 이해하였다. 코딩 절차를 통해 사례들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화하고, 범주 분석과 과정 분석을 하였다. 과정 분석은 자료에서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중재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근거이론 분석의 결과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분석자가 구조(structure)와 과정(process)을 통합시킨 결과로 이론 구축의 축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범주에 하위범주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방식을 동시에 포함시킨다(Strauss & Corbin, 1998).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행위/상호작용전략(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로 [그림3-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3-1]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0)

연구 계획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과 연구 참여자 면접지를 바탕으로 얻어진 자료를 충분히 읽어 연구 참여자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 내용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후, 의미 단위인 개념을 추출하는 목적으로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의미 단위를 기초로 연구 참여자들의 보고가 사회진입 과정 및 경험의 구조로 목록화 하였다. 자료 분석 후 연구의 객관화와 타당성을 위해 질적 연구 전문가가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심층 면담을 진행한 10명의 연구 참여자 면담 자료는 녹음하고 텍스트로 필사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 중단 숙려제에 있는 학생들과 검정고시학원과 학교 밖 지원센터,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들은 대전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기간 학생과, 검정고시 입시학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회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대상자 표집의 남녀 분포는 남자 16명, 여자 14명이었고, 심층 면담자는 10명으로<표3-2>와 같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연령은 18세부터 20세이며 중단 당시 연령은 14세부터 18세로 표집되었다.

<표3-2> 심층 면담자 분류

구분	성별	연령	중단 시기	현재 상황	유형
A	여	19	17	검정고시 준비	무기력형
B	남	18	15	검정고시 준비	무기력형
C	남	19	17	꿈드림/검정고시 준비	학업형
D	남	18	17	꿈드림/검정고시 준비	학업형
E	남	18	17	꿈드림/검정고시 준비	학업형
F	남	19	14	꿈드림/검정고시 준비	학업형
G	여	18	17	꿈드림/검정고시 준비	학업형
H	남	18	18	보호관찰/꿈드림/검정고시 준비	비행형
I	여	20	14	꿈드림/검정고시 준비	취업형
J	여	19	17	꿈드림/취업준비	취업형

2) 심층 면담자 전반적 분석

(1)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는 19세 여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17세)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현재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와 잘 안 맞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친구들이랑 성격도 잘 안 맞았고 학교생

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 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좀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의식도 느꼈다. 친구들이 장난만 쳐도 화를 많이 냈고, 그래서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잦았다. A가 보고하는 학교중단 사유는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난 후부터 방향이 시작되었고 학교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친구 관계에서 잦은 다툼과 욕하는 성격으로 대인관계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위축되는 등 정서적인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모와 상의한 후 자퇴서를 제출하였고 A의 학교중단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학교중단 당시 학교 내에서는 자퇴 관련하여 상담 진행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고, 도움이 되었던 요인은 없었다고 한다. 중단 이후 기관 연계 또한 없었고 학교중단 당시 하고 싶은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 후 대학 입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된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할 거 같아서이고, 누나도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대학을 다녀야 할 거 같았다고 한다.

학교중단 후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받은 적이 없고 특별히 하는 거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며 검정고시 학원만 겨우 다니고 있다. 현재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여부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아직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2)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는 18세 남성으로, 중학교 2학년(15세)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현재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를 했고 선수로 뛰었는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던 축구를 그만두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고 집에서는 학교에 간다고 나섰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학교에 있더라도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혼자만 딴 세상에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방황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위클래스에서 상담도 받았지만 도움이 되는 거 같지 않았고, 결국 집에도 안 가고 사고를 치니 부모님이 자퇴를 허락해주셨다. 자퇴를 하면서 부모님과 약속한 것은 검정고시 학원에 다녀 고졸 학력을 취득한 뒤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 중단 후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생각하는 목표는 특별히

없고 그냥 로또 1등 당첨이나 됐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보고하였고, 하고 싶은게 없다고 하였다.

(3)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19세 남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17세) 시기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C가 보고하는 학교중단 사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서술하지는 못하였다. 고등학교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등교 거부를 시작하였으며, 학교중단이 고민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담임교사의 설득에 C는 등교하였는데 학교나 교실의 모습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다시 다음날 등교 거부를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학교를 중단할 당시에 도움이 되었던 요인으로는 학교 밖 관련 선생님이라고 하였다. 부모님은 학교를 중단하는 것에 크게 거부감을 보이셨고 부모님과 갈등도 심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을 걱정하며, 학교중단을 방지하려고 C의 결심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C의 지지자가 되었다고 한다.

학업중단숙려제 없이 자퇴가 진행되었고, 최종 결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학교중단 당시 하고 싶은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C는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며 지내려고 하였으나, 현재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고, 상황, 어떤 생각 때문이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연구 참여자 C는 힘들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가끔씩 만나는 예전 친구들로부터 가끔 부모님이 우려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C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 같아 힘겹다고 하였다. 검정고시 학원은 다니고 있고 다시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학업 중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교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C는 다른 사람 특히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한다. 현

재의 심리적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C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였고,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애써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학교중단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부모님의 지지, 학력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진로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중단 후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로를 결정하지 않아도 현재의 불편은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진로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기간은 2년 정도인데 자립 준비도 향상을 위해 두드림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캠프, 건강검진, 식사 및 간식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2년가량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였으나 나에게 맞는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고 그냥 학교에 안 가니까 여기라도 가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C가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마련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연중 다양한 체험과 직업훈련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중단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서 C는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4)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18세 남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17세)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D가 보고하는 학교중단 사유는 인간관계 특히 교사와의 갈등, 학교 환경이었다. 중단하기까지의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중단 이유는 D가 수업 시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는데, 교사는 D의 행동이 교사에 대한 반항으로 인지하여 D에게 벌을 서 있게 하였다. 수치심과 억울한 감정이 생겨서 교실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학교를 나가지 않자 담임선생님이 여러 번 연락을 하셔서 다시 학교에 나갔다. 새로운 마음으로 등교를 하였으나 학교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친구들의 쑥덕거림 등이 불편하게 느껴져 다시 담임

선생님과 자퇴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고 자퇴 처리가 되었다.

학교중단 당시 도움이 되었던 요인은 부모님은 허락해주시고 지지해주셨고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학교중단 당시 하고 싶은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된 이유는 비록 교사와의 충돌로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공부는 하길 원했고 중졸은 아닌 것 같아서라고 하였다. D는 검정고시 합격 이후 대학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힘들었던 때는 처음 응시한 고졸검정고시 결과가 불합격이었을 때였다고 한다. 이런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학교중단에 대한 후회가 되어 수개월간 비슷한 또래와 어울리며 음주로 시간을 보냈다. 학교중단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은 돈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만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곳이 좀 더 많아 학교 밖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방황하거나 비행 청소년으로 되지 않고 자기 삶의 목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며, 학원 수강료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개인·집단상담, 기초 소양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문화강좌, 문화예술 체험, 식사 및 간식을 지원받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센터 실무자의 의견으로만 편성되어지는 것 같아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D가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분야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평소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져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댄스, 뮤지컬, 보컬 등 자율동아리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추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거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학교 밖 청

소년들이 모여 어떠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 경험들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 주었다.

학교중단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생활하며 학교에 억지로 나가야 하는 등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5)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18세 남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17세)에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이다. E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입학하였다. 학교를 중단하기까지의 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E가 보고하는 학교중단 사유는 학업 스트레스와 건강이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것을 만회하고자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소화불량 등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힘겨움 속에서도 E는 고등학교 학업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공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과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단하기까지 4개월 동안 부모님과 가족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만류하셨지만 일단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자퇴 당시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학교중단 이후 기관 연계 또한 없었다고 한다. 학교중단 당시 하고 싶은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는 알바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된 이유는 학교중단 이후 직업을 가지려 해도 최소 학력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검정고시로라도 고졸 학위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다. 재학생일 경우 등교만 하여도 시간이 가고 출석 인정이 되면 졸업장을 받고 학력 인정이 되는데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니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따라서 E는 학교중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였고, 매일 학원을 가면서 학교를 대신해 어딘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자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힘들었던 때는 학교중단 이후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을 이용한 경험도 없을뿐더러 가족들도 지지해주지 않다 보니 이 세상에 혼자 고립되어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조력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의 지원이라고 하였다. E는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으며 친구나 후배에게 자퇴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싶다고 하였다.

(6)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F는 19세 남성으로, 중학교 1학년(14세) 시기에 학교를 중단하게 되었다. F는 중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다.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학교를 5년간 다녔고 가정 문제로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 이후 한국학교로 입학하기엔 교육시스템 등을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입학을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목표는 취업을 위한 대학진학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상담과 학업지원이라고 하였다. 상담을 필요한 도움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유학 다녀왔다고 하면 부러워하지만, 유학 생활하는 동안 인종차별과 따돌림을 견뎌야 했기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가정 문제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과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 미래설계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검정고시 대비 학습멘토링과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 지원, 대학입시 정보 등 학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7) 연구 참여자 G

연구 참여자 G는 18세 여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17세)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현재는 검정고시 공부와 수능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G가 보고하는 학교중단 사유는 학업 스트레스였다. 중단하기까지의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중단 이유는 중학교까지 중위권 성적이었던 G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부모님의 기대가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졌다고 한다. 부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였지만 결국 자퇴서를 제출하고 G의 학교중단이

결정되었다.

학교중단 당시 학교 내에서는 자퇴 관련하여 중단을 예방하려는 상담 진행은 없었으며, 자신과 부모의 합의에 따라 학교중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학교중단 당시 도움이 되었던 요인은 없었다고 한다. 학교중단 당시 부모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한다. 학교중단 당시 하고 싶은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 후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이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상담을 해 준 상담선생님을 보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고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G는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 입학의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 대학입시 설명회, 대학 입시 컨설팅 이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힘들었던 때는 자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찍 찾아왔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질책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퇴생 또는 문제아로 소문이 나서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자신이 수치스러웠고 죄스러움을 느껴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검정고시에 대비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 검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중단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학업 지원이라고 보고하였다. G와 같이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검정고시 대비반, 1:1 학습 멘토링 등 학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 참여자 G 자신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초 학교를 중단하였기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스스로 학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고졸검정고시 성적은 대학응시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보다 2등급 정도 하향되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G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개인 상담, 검정고시 대비반, 온라인 강의, 대학입시 설명회, 대학응시 컨설팅, 기초소양 교육, 건강검진, 문

화강좌, 문화예술체험, 동아리, 식사 및 간식을 지원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G가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세 부적이고 체계적인 학업지원이라고 한다.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를 선발하는 대학의 관문도 매우 좁고, 학교와 같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수시입학 응시에서 더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좌절하게 만든다고 한다. 고등학교 정규과정 졸업자는 전공 관련 과목을 배우고 대학을 입학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겨우 취득하기에 기본 배경지식 없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어 학과 동기생들보다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힘들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좀 더 심화된 학업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들이 갈 곳 즉 소속될 수 있는 곳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며,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져갔으면 한다고 하며, G가 보고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쉬운 점은 우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의 교체가 빠르게 느껴지는 점이라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에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실무자가 교체되다 보니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례를 담당하게 될 실무자가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리셋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례담당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불편하였다고 한다. 또한 불편하게 느꼈던 점은 협소한 공간과 청소년시설이나 다른 복지시설의 공간 한편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센터의 형태인 점을 들었다. G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센터와 거점 공간의 확대를 희망하였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을 권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G는 권유하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회공동체 소속감 부여를 통한 안정감, 안정된 소속 안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형성, 함께 센터 내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받는다는 편안함, 학교 밖 청소년들 간 경험 공유 및 공감,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앞으로 사회진입을 위한 정보나 도움을 어디서 얻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또 다른 지원센터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보고 하였다.

(8) 연구 참여자 H

연구 참여자 H는 18세 남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18세)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현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H가 보고하는 학교중단 사유는 친구, 학교, 교사와의 갈등이었다. 학교를 중단하기까지의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중단 이유는 먼저 친구들과 잦은 갈등과 폭력으로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되는 경험이 학교적응을 힘들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의 처벌로 인한 출석정지, 위탁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은 학교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H는 학교중단 의사가 없었는데 학교는 부모에게 자퇴를 권유하였다고 한다. 자퇴를 권유하는 기간에도 강제 출석정지로 인해 학교를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퇴를 하지 않으면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 자퇴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중단 당시 학교 내에서는 중단을 예방하려는 상담이나 자퇴 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연계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학교중단 당시 목표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었다고 한다. 학교에 다니며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아로 찍혔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학교중단 이후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하니 개인적인 목표나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한다. H의 부모님도 H에게 관심도 없었고 어떠한 지원과 지지도 없었다고 한다. B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또래들과 어울리며 지냈었는데 보호관찰을 받으며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소개받아 초기 면접 상담을 받고 센터를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개인상담, 검정고시 대비반, 온라인 강의, 기초소양 교육, 건강검진, 동아리, 교통비, 식사 및 간식을 지원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학교중단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은 부모님의 격려와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많아지고 또 자신처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지원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비행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설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H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는 검정고시 지원과 인턴십을 최우선에 두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학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에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학력 취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인턴십은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단계라고 여기게 되어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노동과 돈의 소중함, 사회적 관계 형성, 자기 관리 능력 증진, 소속감 형성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꼭 경험해 보아야 할 지원 서비스로 꼽았다. 기관을 이용하며 불편하였던 점으로 집단 상담에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참여할 때는 운영일이나 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속해야 할 지원서비스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동아리를 구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학교중단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씩 실행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예전에 비해 편안해져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9) 연구 참여자 I

연구 참여자 I는 20세 여성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중등 과정부터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고등과정까지 마치고 졸업하였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어머니께서 종교(기독교) 대안학교로 가게 되었다. 가정에서의 변화도 힘들게 받아들여졌었는데 갑자기 학교를 옮기게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았고 어머니의 계획대로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자퇴를 신청하였다. 학교중단 당시 중단을 예방하려는 상담도 없었고, 담임선생님은 자신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으며 자퇴 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연계도 없었다고 하였다.

현재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대학진학을 해서 치위생과 전공을 목표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고 있으며 검정고시 학습지원, 동아리 활동, 멘토링 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식사 및 간식 지원 등에 참여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으로, I가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는 삶의 본질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지원서비스 중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점으로 검정고시, 대학진학,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우선 삶에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10) 연구 참여자 J

연구 참여자 J는 19세 여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17세) 시기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연계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고 있다. J가 보고하는 학교중단 사유는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회피라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초등학교 재학시절 또래들의 괴롭힘으로 힘든 경험을 하였고,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또래의 괴롭힘으로 힘든 일들이 연속되어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들의 행동을 무시하라고만 하는 부모님과 위클래스 상담교사와의 상담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J는 등교를 거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괴롭힘을 견뎌야 하는 자신이 더 이상은 힘들고 싶지 않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결국 자퇴서 제출하였고 학교중단 당시 학교 내에서는 상담 진행은 없었으며, 도움이 되었던 요인은 없었다고 한다. 중단 이후 기관과의 연계도 없었다.

학교중단 당시 하고 싶은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는 전혀 없었다고 하며 그냥 쉬고 싶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님 보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하였다.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학교중단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고졸검정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감이 생겼으나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고민했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꿈

이 변하고 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학교중단 이후 진로목표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고 한다. J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매일 나와 스스로 검정고시 공부를 하였고, 검정고시 응시 접수·검정고사장 지원도 받았다고 한다. 검정고시를 합격 후에는 인턴십과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지원도 받았다.

학교를 자퇴한 것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없었지만, 학교중단 이후 가장 힘들었던 때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기간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부모님의 지지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게 느껴졌다. 그리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느라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자신이 중학교 과정보터 다시 공부하려다 보니 학습진도를 따라가기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중단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사회진출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과 면접 보는 방법,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 J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개인 상담, 인턴십,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검정고시 응시 및 고사장 지원, 문화예술체험, 건강검진, 식사 및 간식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J가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거점 공간 마련과 대인관계 기술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중단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 재학 중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좋고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인식이 좋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J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직종에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진로를 확정하고 사회진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서 J는 학업유지를 위한 동기 강화 프로그램,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이라고 하였

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된 거점 공간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검정고시 대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처럼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앞으로 사회진출을 위한 정보나 도움을 어디서 얻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 내 다른 기관에서 알려주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3) 심층 면담자의 학교중단 분석

심층 면담자 10명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 자료를 분석하여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을 거쳤다.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하기를 통해 심층 면담 자료를 함축하고, 개념들을 명명하였고, 유사 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여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달시켜 나갔다. 개방 코딩 결과 10가지의 범주와 40가지의 하위범주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전후 맥락을 살펴 [그림3-1]과 같이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0)을 기반으로, 축 코딩 결과를 <표3-4>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분석에 제시하였다.

<표 3-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분석

요소	범주	내용
인과적 조건	학교중단 과정 및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교사와의 갈등 • 학업스트레스 및 건강 • 학교시스템 부적응 • 또래 관계 • 가정(가족, 경제) 문제
맥락적 조건	심리사회적 긍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지지, 신뢰 • 경제적 지원 • 친구들의 부러움
	심리사회적 부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무관심, 부정적 피드백 • 비자발적 학교중단 • 상담 및 지원기관 정보와 연계 부재

	개인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 대학진학 • 사회진출 계획
	목표 미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력과 동기 결여 • 좌절된 미래계획
중심현상	학교중단 이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의 부재로 인한 소외감 • 대인관계 어려움 •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일상 • 일탈행동 •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 학업의 어려움
중재적 조건	심리사회적 대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의 지원 • 정보탐색 및 실행 • 지역사회 기관 이용
행위/상호작용 전략	사회진출 준비행동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활동 참여 •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을 위한 학습활동 • 생활관리 지원 • 개인/집단 상담 • 취업활동 지원
결과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 향상 • 성취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향상 • 여유 있는 삶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맞춤 진로프로그램 필요 • 다양한 체험과 직업훈련 • 거점 공간 마련 필요 •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필요 • 삶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사회진출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 대인관계 기술향상 프로그램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개인, 부모, 또래, 사회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과정 및 사유로 범주화하여 인과적 조건으로 정하였다.

- 개인 요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 건강 악화, 무기력함, 대인관계 기술 부

족으로 스트레스나 건강상의 문제로는 정신적 증상 발현되어 학교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대인관계 기술 부족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에서 소속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져 갔다.

- 부모 요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심리적 변화와 원치 않은 교육을 받아야 했고,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유학 중단이 학교중단으로 이어졌다.
- 또래 요인으로 괴롭힘의 경험에 대한 누적된 스트레스와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로 학교를 중단하였다.
- 사회/학교 요인은 교사와의 갈등, 문제아로 낙인, 학교 처벌의 역효과, 학교 시스템 부적응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교사와의 갈등으로 청소년 행동에 대한 교사의 성급한 판단과 교사와 의견 충돌이 학교중단의 원인이 되었다. 낙인은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아로 인식되어 원인 제공자로 낙인찍혀 학교를 중단하였다. 다음은 학교 처벌의 역효과로 학교에서의 부당한 처벌, 출석정지 등으로 인해 학교중단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학교 시스템 부적응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을 수용하지 못하여 학교를 중단하였다.

(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은 사람들이 행위/상호작용 전략을 통하여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조건의 집합이다(Strauss & Corbin, 1990). 이는 차원적으로 시간과 장소에서 교차하여 중심현상의 이유를 설명한다. 학교 중단 당시 심리·사회적 긍정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부정적 요인, 학교중단 당시 개인목표 설정과 미설정을 맥락적 조건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인 학교중단 이후 어려움의 이유를 설명해 주며, 사회진출 준비행동 전략인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된다.

- 학교중단 당시 심리·사회적 긍정적 요인으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신뢰, 경제적 지원이었다. 또래로부터는 위로와 격려, 친구들의 부러움이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의 학업중단숙려 상담, 학교 담임교사가 학교중단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

- 학교중단 당시 심리·사회적 부정적 요인으로 부모의 무관심과 부정적 피드백이었고,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자퇴권유 등 비자발적 학교중단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중단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 학교중단 당시 개인목표 설정이 된 경우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과 대학진학을 원했고, 사회진출을 계획한 것이었다.
- 학교중단 당시 개인목표가 미설정된 경우는 학교중단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무기력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동기의 상실이었었고 환경의 변화로 그동안 해왔던 미래준비의 과정이 좌절되었다.

(3) 중심현상(phenomenon)

중심현상은 사람이나 관련 집단이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하여 행하고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중단 이후 어려움을 중심현상으로 두었다.

-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것으로 인한 소속감 결여는 소외감으로 느끼게 되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위축된 대인관계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매일 학교에 정해진 시간에 가지 않아도 되니 자유를 느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일상이 계속되고 이는 음주, 흡연, 범법행위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역할 즉 학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검정고시에 대한 부담감과 검정고시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 검정고시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학교중단 이후 학업 재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학교중단이라는 사회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좌절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힘겨워하였다.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면서 변화시키는 조건들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학교

중단 이후 심리·사회적으로 대처요인을 살펴보았다.

- 개인 요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중단 이후 힘든 시기에 현실을 직시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회피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또한 입시, 진학,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대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부모 요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격려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것과 경제적 지원이 심리사회적 대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사회요인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과 위기예방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과 진로, 문화, 건강 등을 지원하고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 달리 학업에서 좀 더 자유롭고 깊이 있는 탐구 수업이 학교 중단 이후 심리사회적 대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행위/상호작용 전략 (action/ interaction)

근거이론의 행위/상호작용은 개인이나 집단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학교 중단 이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 경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 준비행동을 위한 강화된 요인을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 진술을 통해 개념화하여 살펴보았다.

- 다양한 활동 참여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용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다.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활기가 생기는 거 같아요.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잠만 잤는데 이제는 매일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고 심리상담 받고.... 나도 갈 데가 있어서 좋아요. (연구 참여자 C)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 주었어요. 예상하진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로 뮤지컬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컴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비도 지원해주었고, 인강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고... 센터 선생님들이 전화하고 챙겨주시고.... (연구 참여자 G)

- 학습 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 대비반에 참여하여 검정고시 교재 제공 및 온라인 수강지원,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 지원, 검정고시 응시 접수 대행, 검정고사장 지원 등 검정고시 세부적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습 활동 지원으로 얻은 성취 경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라서 집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고 센터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교재도 받았고, 온라인 강의도 무료로 다 지원을 해 주셔서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해서 (고졸검정고시)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F)

일단 혼자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죠. 부모님은 맞벌이하시고 학원 알아보기도 힘들었고, 검정고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인강 듣다가 그마저도 힘들어서 못 듣고 그랬는데 센터에서 알려주셔서 지원받았어요. (연구 참여자 G)

(고졸)검정고시를 봐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센터에서 학원비 지원해주셔서 학원도 다녔고, 센터에서 (멘토)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했고, 그게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I)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보게 도와주셔서 빨리 패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니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 검정고시라도 고졸이 되어야 하니까.. 빨리 취업해서 돈 벌려구요. (연구 참여자 J)

- 생활 관리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제도권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의 건강의 이상을 진단하고 예방하고자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관리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검진 저는 피 땀는 게 너무 싫어서 건강검진을 피했었거든요. 근데 쌤이 같이 가주신다고 해서.. 정말 무섭지만 필요하죠.. 당연히. 가셔도 너무 무서웠는데 쌤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혼자 있을 때가 많아 밥을 잘못 먹을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아침 먹고 나갔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아침을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점심을 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

- 취업 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지원인 사회 경험 지원은 보호자의 노고, 경제 개념, 근로로 얻는 자기수월성 및 효능감, 생산성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턴십 하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 같아요.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근데 확실히 돈을 벌해보니까 정말 이 일 하면서 다리랑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욕도 먹으니 쉬운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내가 내 관리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해야지 아니면 사회에서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몸으로 실천(해낸 내가) 이렇게 딱.. 달으니까 그게 쿨 거 같아요! 행동으로 한 게 느껴진 게 커요.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한 순간에 갑자기 느껴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동안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편하게 있던 거구나! 근데 사회생활은 정말 어... 진짜 달라요. 근데 그거 진짜 한 번쯤은 필요한 거 같아요. 인턴십은 사회생활을 못 느껴본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J)

(6) 결과(Consequence)

근거이론에서의 결과는 행위/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사회진출 준비행동 요인의 결과인 만족감과 미해결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학교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얻었던 요소는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 성취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향상과 여유 있는 삶이 있다고 했는데 심리적 경험을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 진술을 통해 개념화하여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때로 다시 가라면 절대 안갈거예요. 절대.. 학교에는 안가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런건 싫지만.. 그때의 나에게 잘했다고 해주고 싶어요. 꿈드림에 오는거 좋아요.(연구 참여자 D)

(학교를 그만둔 이후 당시 목표는) 이루어졌어요. 검정고시 합격, 바리스타 자격증 땀 거요. 목표를 다 달성하고 목표를 꿈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있고(요). (연구 참여자 E)

어차피 대학에 들어가려면 경쟁을 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짜여진데로 하지 않고 내가 계획해서 공부하니까 편하고 좋아요. 검정고시로 고득점을 받으면 더 유리할 거 같구요.. 온라인 강의 들으며 문화예술? 그런 것도 즐길 수 있어서 여유가 생긴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G)

제 목표가 있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 목표는 사실 이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거구 또 대학에 가면 되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제 이상이었는데 지금이 그래요. (연구 참여자 I)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지식이 쌓이고, 이론적으

도 (습득되고 있고요).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취업성공패키지 단계 1단계를 하고 있는데 30~40%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J)

- 학교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해결 과제로 남은 것은 개인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다양한 체험과 직업훈련, 거점 공간 마련 필요,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필요, 삶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회진출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대인관계 기술향상 프로그램이라 했는데 심리적 경험을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 진술을 통해 개념화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음.. 나한테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 A)

그러니까 조금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잘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냥 맨날 비슷하잖아요. 다 프로그램이 원래.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맨날 앉아서 하는 거 말고.. 많이 해봤으면 했죠. (연구참여자 E)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경험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편히 아이들만 따로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D)

꿈드림 말고도 다양하게 진짜 다른데 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많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여자애들만 있는 곳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집단 상담을 들었었거든요. 두 번인가 세 번 들었었어요. 근데 한 번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애들이 왔는데.. 근데 약간 개네들 기에 놓리는 그런 게 약간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불편했었어요. (연구 참여자 H)

이제 대안학교를 다녔으니까 감정고시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해야 하는 게 감정고시더라고요. 어쩌면 공부하는 거 공부시키는데 제일 중요할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와서 사실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일단 하긴 했죠. 애들한테 프로그램과 어떤 감정고시, 대학 입학, 취업이 아니라 삶에서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센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자퇴하고 여기 있는데 계속 공부, 공부... 대학, 취업 이런 게 목적이 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연구 참여자 I)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지금도 별로 없어요. 인턴십은 해보고 싶어서.. 이거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할까 한 번 궁금해서 이 가게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뭐를 하나 궁금해서 선택했어요. 제 장래 희망을 결정하는 데에는 도움... 근데 영향이 없었어요. 제가 영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일을 하면 재미있는데.. 직업으로 갖기에는 좀 아닌 거 같기도 해서요. 어... 제가 생각한 건데요. 아직 그래봤자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밖에 안 한 거라서요. 그중에서도 이게 가장 괜찮고 보람있다 싶은 걸로 좀 선택하면은 그걸로 목표를 하겠는데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아직은 센터에 안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를 가게 되면 낯선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같아요. 어... 다른 데 갔었을 때도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수업을 모르는 애들하고 다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해서 친구랑 항상 붙어 다녔는데 이제 모르는 애들이랑 다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4. 결론 및 제언

연구 참여자의 면담 자료를 통해 학교중단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연구 참여자별로 전반적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청소년 이용기관이나 인력자원 등 자원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 목적인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실제 경험 간 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사회 역할과 지원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반구조화 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주요 결과와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 건강 문제, 무기력함 학교폭력 및 교우관계, 정서적 문제들로 인한 개인 요인과 부모님의 이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부모 요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대인관계로 인한 또래 요인, 교사와의 갈등, 문제아로 낙인, 학교 처벌의 역효과, 학교 시스템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 요인에 의해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를 중단하였다. 학교중단 당시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또래로부터는 위로와 격려, 사회적으로는 의사존중의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지만, 부모와 친구들의 무관심과 비난, 조롱, 사회적으로는 자퇴 권유와 기관 미소개 등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후 생활실태는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생활을 하는 것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을 무료하고 지루하게 보내는 일로 나타났다. 이때 청소년들은 목표 설정이 명확하기보다는 막연히 검정고시 학력 취득에 집중되어 있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일상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중단 이후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학교중단 이후 청소년은 현실적인 여러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통찰하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인다는 김수연(201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변화가 필요함을 자각하였다. 학교중단 당시 심리사회적 긍정요인이 많거나 개인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을 경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목표 도전에 대한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나, 주위의 부정적 시선이나 문제아라는 선입견 등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스

스로 마음을 챙기는 행동을 보이며, 정보를 탐색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방문하거나 검정고시학원에 직접 등록하는 등의 행동을 실행한다. 하지만 무기력한 상태로 집에만 있거나 아무에게도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비행청소년 등 소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은 개인의 목표의식과 통찰력, 자존감, 성실함을 획득하고, 검정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대학진학과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립능력 습득 등 더 큰 목표를 위한 의미 있는 성취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갖게 하는 동기부여의 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가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중단 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대처해 주거나, 불규칙한 생활 리듬과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훈계가 필요하며, 자녀에 대한 신뢰와 격려 등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지원기관 정보를 알아보고, 연계하고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주도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지지해주는 부모의 태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목표 성공을 위한 준비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청소년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것으로 인한 소속감 부재에서 오는 소외감과 상실감이 겹치기 어려운 고통이 되었으나, 청소년단체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의 힘든 시기를 견디어 내는데 중요한 대처요인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의 심리상담을 통해 얻어지는 심리적 안정과 자기성찰을 돕는 대안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적이며 안정적인 개인목표 성공을 도모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극복하고 개인목표를 달성하는 요인으로 개인, 부모, 사회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요인은 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개입 및 지원이 개인적 특성, 조건에 따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개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로는 비록 학교는 중단하였지만

학력취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단체 및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청소년 이용시설을 자유롭게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는 위클래스를 통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쉽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와 분석 및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관과 관련 단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볼 때 적극적인 홍보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알리는 작업은 중요할 것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현황은 여러 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광역시라는 규모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하며 교통편의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중단 이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욕구는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합격으로 대학진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유희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대처할 기회를 제공하고,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NEET)에서 탈출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 개인목표 성공 행동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이용하는 기관에서의 대인관계 증진 활동과 소속감 획득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기관에 소속되기를 희망하였다.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라포형성, 사회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은 소속감이 형성되었고, 불편한 사회인식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는다라는 인식과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실

무자나 멘토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기관에서의 경쟁과 위계 구조가 없는 또래 친교의 장은 구성원 간의 자율성과 안정감이 형성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기관 실무자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되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 완화로 인해 안정된 관계 맺음으로써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학교중단 당시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려고 정보를 탐색하지만,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정고시에 관한 세부적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나아가 대학진학을 계획하게 되고, 자격증 취득과 같은 성취 경험의 축적으로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인턴십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 활동 지원은 경제 개념, 근로를 통해 획득한 자기효능감, 생산성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사회진출에 대한 동기나 목표를 향한 도전 의식을 고취해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 목표 성공을 위한 준비행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서비스와 이용 청소년의 실제 경험 간 분석 결과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의 환경 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과 상담실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마다 이용기관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에 소속되어 사회진출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고, 전용공간 확보, 실무인력 확충,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 등 모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중교통 이동이 원활한 곳에 개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동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 센터의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요구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입주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청소년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것과 기관 간의 중첩된 사용, 일반 성인이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도 함께 이용하는 건물 일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복을 입지 않거나, 학교 운영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때 타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김송이, 2017).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의 호소 문제를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거점 공간을 비롯한 전용 상담실과 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용하는 기관의 환경 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긍정적 관계 경험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기관 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계 갈등 회복을 위한 위원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유는 소속 청소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 갈등 해소보다는 해당 청소년들이 기관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봉합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이용기관에서 실무자의 잦은 변화로 인해 성인과의 긍정적 경험이 중단되고, 기관 소속 청소년들은 새로운 실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재진술해야 하는 불편함이 호소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실무자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하기를 기대하지만, 실무자의 과다한 행정 업무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함께 갖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실무자들의 이직이 매우 잦은 것을 의미하며 그 원인에는 많은 업무량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예산에서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 예산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며, 실무자의 업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기관의 지원 측면으로는 먼저 학업중단숙려상담 등 학교중단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중단 이후 학업, 아르바이트, 대인관계 등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으며, 복교하더라도 자신보다 어린 재학생들과의 관계 맺음 등이 어려워져 재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학교중단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개입 및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과 상황,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개입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허브형 대안학교(두런두런, 다온교육원, 바로새움 동산, 엘에스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유입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신속한 연계는 학교중단 이후 청소년의 방황하거나 이탈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학교중단 당시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

교 밖 청소년의 소속된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 관련 기관에서는 내방 초기 소속감 및 대인관계 기술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호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센터에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을 상담해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부터 파악하고, 개인의 목표를 탐색하여 단계별로 차별화된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진출에 대한 의지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담과 대인관계 기술증진 목적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이유로는 학교중단 전후로 심리 사회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이 이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학교중단의 이유가 또래 갈등일 경우, 기관에서도 같은 이유로 중단을 재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술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지원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졌지만,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육보다는 쌍방향 반응을 지향하는 교육 등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 학력 취득 이후,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시설명회와 개인별 적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하여 현행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청소년이 제한된 대학입시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정고시학원이 입시학원의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생활지도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진출 목표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기유능감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다양한 사회진출 준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현장성과 유연함이 발휘되거나 허용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의 경우에는 사회진출 목표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정보 제공과 진로

탐색 활동이 필요하다. 인턴십과 같은 실질적인 직업 및 직장 체험이 가능한 지역사회 내 기관,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진출 준비행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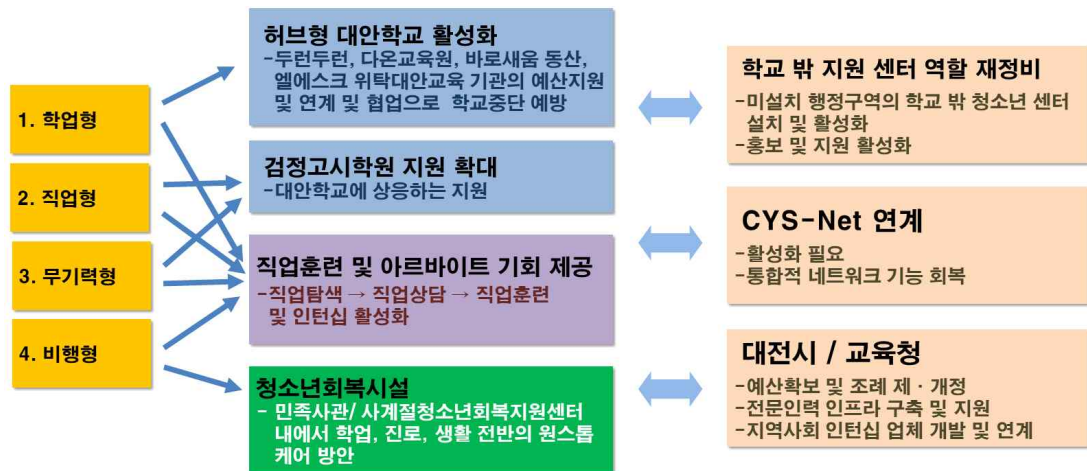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학교중단 전부터 학교중단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전략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개선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돕고자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이용기관의 개입 및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어떠한 영향 요인이 자신에게 변화를 주었는지, 그러한 변화에 청소년 자신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대처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부모, 교사, 학업 중단 위기 재학생에게 학교중단 전부터 중단 과정, 사회진출 성공 및 남겨진 과제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의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의 수요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 성공 경험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바람과 욕구를 토대로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영역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적 의의가 있다.

5.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제안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정책 제안은 [그림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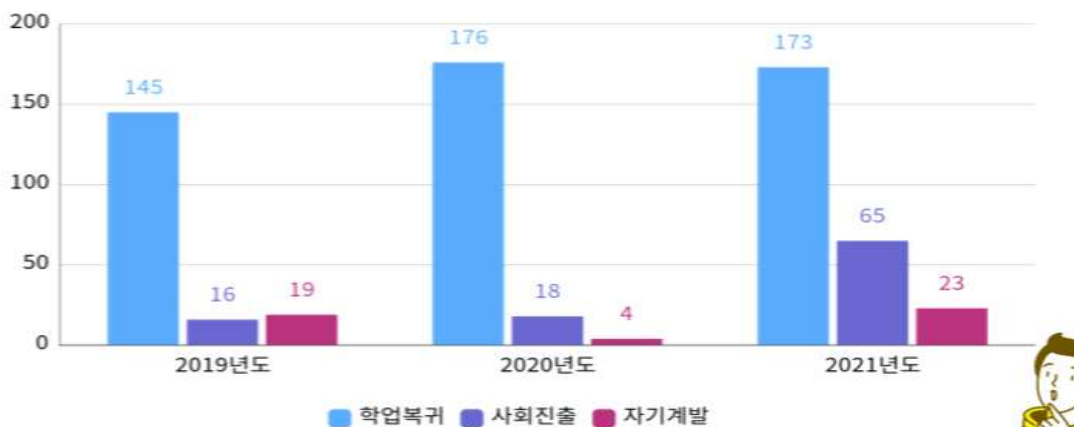
[그림3-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모든 유형에서 학력취득과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직업훈련 등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검정고시학원을 비롯한 직업학원이 학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와 같은 역할부여가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교육, 진로, 건강, 상담 등 전문기관에서 케어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서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계고등학교인 K고등학교의 8명의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들에 대한 집단상담 결과 친구문제와 가정안의 문제로 인해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가 수면 하에 잠복 되어 있지만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에서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4곳의 대전시 학력인정 대안학교와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 하여 학력취득과 사회진출이라는 사회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케어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중단 당시 허브형 대안학교 활성화로 학교중단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연계 신청과 보호자, 청소년에게 지원서비스 안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부터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았고, 학교 현장에서 중단 즉시 연계되는 경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은 정보나 서비스 지원과 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이는 사회 인적자원의 유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행하도록 강화하였으므로 학교중단 확정 당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연계 신청과 보호자 및 청소년에게 지원서비스 안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대전시 유성구 꿈드림 센터(학교 밖 지원센터)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신규 사례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검정고시, 직업진로, 심리 돌봄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시스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유성구 꿈드림 학업-사회진출(자립) 성과 (2019 - 2021년도)



[그림3-7] 초·중·고교 학업 중단율

셋째,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1호처분 시설이 확충 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전에는 1호 처분 청소년회복시설이 남성은 민족사관에서 여성은 사계절에서 케어 하고 있다. 1호처분을 받은 비행형 청소년들을 위한 1호 처분 보호시설이 확충 되어야 한다. 다음은 1호처분 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신규 입소자가 없고 기존의 청소년들을 최소한 보호 하는 실정이다.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한 학업 지속과 진로, 생활지도를 통해 일탈과 비행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5> 1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 현황

구분		입소 인원	퇴소 인원	현원
민족사관청소년 회복지원시설	2014년	1	0	0
	2015년	6	3	3
	2016년	10	7	6
	2017년	9	8	7
	2018년	10	12	5
	2019년	7	11	1
	2020년	8	6	3
	2021년	4	3	4
	2022년	0	1	3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청소년을 얼마나 유기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Network)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활성화가 필요하며, 대전시와 교육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예산확보 및 조례를 제·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생산과 경제적 안녕에 기여할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 준비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시설, 설비에 대한 예산 투입과 공간, 전문인력 확보,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업체 개발 및 연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ICT 기반 전기기능사 및 CAD 전문가과정의 개요이다.

ICT 기반 전기기능사 및 CAD 전문가

- 4차 산업 기반 기술인 전기기능사 수요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전기 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의 필요성과 유관 산업인 ICT 융합 전기기능의 고도화된 정밀 기술인 양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다.
-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하여 유휴 및 실업의 노동력의 잠재능력 개발로 ICT융합 전기기술 직종으로서의 진입 기회 확대와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취업, 재취업, 창업, 여성의 취업 확대, 고령의 퇴직자 기술 교육 등을 위하여 전기기능사 국가 자격취득 및 현장 실무 능력을 위하여 일반 CAD 와 전기 회로설계 CAD 전문 기술인력 배양
- 전문 기술 훈련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연계추진, 평생교육과 기술 습득.
-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과 연구소 방문 견학 그리고 국가시험 응시로 이루어진다.

1.대상:

- ICT 기반 전기기능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전기기기제작, 운전, 보수 등의 실무종사자로 취업희망자.
- CAD 전문 교육 이수하여 융합 직업계통에 종사를 원하는 자.
- 전기배전 기술을 습득하고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에 응모하고자한 자.
- 군 기술병으로 입대 원하는 자
- 전기관련 회사의 입사를 원하는 자.

2. 관련업체 현장조사(30회사, 자체조사): 44 명의 높은 수의 구인을 원함.

ICT 기반 전기기능사 및 CAD 전문가 과정과 더불어 뷰티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지역의 대학교 또는 직업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이 진행 된다면 대전시의 특화 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섯째,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사업(꿈드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미 오래 전 대전시 용역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2013년 학교밖청소년 실태 및 Care 대책’에서 제언했던 내용으로 2021년도부터 분리되었다. 이어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중구, 동구, 대덕구)는 법적근거를 통해서 시급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부모나 가족은 매우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전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의 제도권에서 떠난 이후 갈등, 혼란, 고립,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관계가 끊기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시급히 설립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공립형 대안학교가 허브기능으로 청소년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학교복귀, 사회진출을 하는 단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들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전담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미래의 꿈을 탐색하고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 시험문제집을 받는 정도의 진로탐색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4차 산업시대에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적응 할 수 있는 청소년 SW코딩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장학금제도, 급식사업, 단순 진로체험을 벗어난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심리적 건강지원, 기본적 생활지원 등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적 고립으로 희망을 잃고 있을 때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법적 제도적 근거를 통한 발굴시스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정화(202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 분석: 조례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
- 교육부(Wee). <https://www.wee.go.kr>
- 김경애(201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 방안 연구: 생애 진로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4-05.
- 김광병, 김수정 (2020).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분석. 사회복지법제연구, 11(2), 143-163.
- 김미옥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형상학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 (LCA) 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선녀 (2019).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및 개정 현황과 개선방향: 2019년 조례 제정 및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3), 173-195.
- 김수연(201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김광병(2020). 조례분석을 통해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적 인정. 청소년복지연구, 22(3), 253-275.
- 김지경, 정윤미 (2014).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예산에서의 국고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1(6), 369-391.
- 김지윤, 홍정순(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2), 393-412.
- 김현수(2020).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서울: 알피스페이스.
- 꿈드림. <http://www.kdream.or.kr>.
- 남미애(2006). 학교밖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4(2), 147-196.
- 명소연, 조진옥(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 밖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 24(2), 75-98.
- 문성호, 정지윤(201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예산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58), 201-226.
- 문성호, 노지혜 (2020). 가치비평적 접근을 적용한 학교밖청소년 정책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7(2), 439-466.
- 민하영 (1991). "청소년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경 (2007). 위기청소년의 가조건강성과 자아상태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화(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가족건강성, 진로탄력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관계분석.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남, 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배미경(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탈학교 의미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순희 (2017). 학업 중단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0.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2007).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생활경험 비교 연구: 정규학교 중단 후 힘든 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213-245.
- 손병덕, 김민선(2017). 잠재적 학교 밖(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모형 개발. 청소년학연구, 24(10), 197-221.
- 손승연(2003). 학업중퇴자: 현실과 대안. 서울: 학지사.
- 안인영 (200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가족건강성, 학교생활 적응과 우울과의상관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8b). 2018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승희(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경험과 저격글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은경 (2014).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 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12(2), 65-80.
- 오혜영(2012).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의 통합적 지원모형.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윤철경, 류방란(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23.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8-R16.
- 윤철경, 류방란(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미라 (2005). 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지지체계가 진로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223.
- 이용교 (2015). 조례제정을 통한 복지혁명. 광주: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정림, 조영아(2017).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90-102.
- 이주연, 최지훈(2019). 2019년 전라북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전주: 전북연구원.
- 이현우, 양명숙 (2015).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기개념명확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91-116.
- 장근영, 서고운, 윤철경, 이동훈(2019). 학교밖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52.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귀연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주희(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효정(2016). 지각된 낙인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강원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내적·외적 요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덕(2020).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년 삶의 질 변화. 배재대학교 마인드심리상담연구소.
- 조경덕(2018). 2018년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대전시 연구보고서.
- 조성제, 김윤나(2018). 청소년지원관련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5(3), 47-74.
- 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84.
- 조혜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485-498.
- 최유선, 손은령(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0).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기관(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https://lib.seoul.go.kr/search/detail/CATLAZ0000001366996?tr_code=lib
- 홍선영, 박금식, 박지영 (2018). 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1-202.
- Bloom, D.(2010). Programs and policies to assist high school dropout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89-108.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ENB교육뉴스방송(202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http://www.enbnews.org>
- McWhirter, J., McWhirter, B. T., & McWhirter, E. H. (2007). *At 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for counselors, teachers psychologists, and human service professionals*(4th ed.)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trauss, Anselm & Corbin, Juliet(2001)/ 신경림 역(2001). 근거이론의 단계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서울: 현문사.
- 이정아 충남일보 기자. hellofeliz@naver.com. 입력 2021.08.30 17:26.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2. 인터뷰 가이드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 케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충분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1~2회 이상 실시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될 것이고, 이 녹음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본 연구를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중단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중단시 지역사회 기관에 연계는 되었는지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에서의 도움되었던 점과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케어 방안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인은 학교중단 전후로 경험한 청소년으로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 자신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음을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며 연구인이 참여자의 이름이 밝혀질 일은 절대 없음을 보장하고 익명으로 인용될 것이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참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본인은 심층면담에 응할 것과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허락하며 조사와 면담내용이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한 연구를 마친 후에는 모든 녹음 기록을 안전하게 지워질 것을 설명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 (서명)

연구자 : 조 경 덕 (서명)

날 짜 : 2022년 월 일

<부록 2> 인터뷰 가이드

1. 학교중단 이유

- 1) 학교중단을 생각하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2) 학교중단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학교중단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 4) 학교중단을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 5) 학교중단을 생각했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 6)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었나요?
- 7) 학교중단을 하고자 할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 8) 학교중단을 하고자 할 때 가족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 9) 학교중단을 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 10) 학교중단을 하고자 할 때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 11) 학교중단을 생각할 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권유받고 참여했나요?
- 12) 학업중단숙려제를 참여했다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 13) 학업중단숙려제를 참여 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2. 학교중단 이후 계획

- 1) 학교중단 이후 개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 2) 개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 3)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였나요?
- 4) 학교중단 이후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5) 현재 당장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6) 학교중단 결정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요?

3. 학교중단 이후 어려운 점

- 1) 학교중단 이후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2) 학교중단 이후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3) 만약 학교중단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 기타(국가, 지자체, 학교, 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